

# 영산강 수해 폐기물 처리 특정 업체에 몰아줘

### 무안군, 한 업체와 3억5100만원 수의계약 등 5건 18억 특혜 유착 의혹에 “긴급 사안이라 재공고 안해...적법한 절차 거쳐”

무안군이 영산강 수해 쓰레기 폐기물처리용역 사업비 수 십 억원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줘 관련업체와 유착의혹을 받고 있다. 20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1213t의 영산강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남 서남권 대형 폐기물 소각처리업체인 A사에 3억 5100만원에 달하는 용역사업비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했다. 무안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영산강 상류에서 내려온 수해 쓰레기를 수거한 뒤 제방에 쌓아놓았으나, 삼향읍 동부센트레빌-롯데아울렛 구간의 쓰레

기에서 악취가 발생하면서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은 7월 26일 '영산강 쓰레기처리용역 발주사업 입찰공고'를 낸 뒤 입찰 당일인 8월 3일 공고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후인 5일 A업체와 3억51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공고변경 과정에서 긴급 소각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했다. 조달청 폐기물처리관리법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은 전국단위의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며,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에서 매일 방역작업을 실시해야 할 정도로 수해 쓰레기를 긴급 소각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무안군내에 2개의 소각처리업체가 있지만, 경쟁업체의 경우 영암군의 방치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올해 말까지 쓰레기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여서 A업체에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입찰 공고변경 과정이 긴급하게 처리된 것은 물론 특정업체에 몰려 있어 유착의혹이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A업체는 지난해와 올해 무안군이 발주한 18억여원에 달하는 영산강 수해 쓰레기 폐기물용역사업 5건 모두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무안군 계약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9월 7일 '천재지변이 아닌 작전시 병력이동 등 매

우 긴급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 입찰에 부질 여유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A업체와 2억57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문도 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1차 유찰되지 나흘만에 A업체와 11억 6400여만원을 수의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계약처리 한다'는 규정을 들어 재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경쟁업체가 영암군에 지난해 15억원, 올해 12억원을 수주해 입찰에 참여 못한다고 했고, 유찰 2회부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코로나 1차 유찰때도 가능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업체의 처리 능력을 확인한 후 계약부서에 의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무안=김준민 기자 jun@kwangju.co.kr



### 전남경찰청 가거경비대 가거도 섬가꾸기 행사

전남경찰청 가거경비대(대장 김기갑)는 최근 가거도 일대에서 가거도관리사무소 임직원, 예비군중대, 가거도 주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섬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사진> 이번 행사는 한국 섬진흥원 출범에 맞추어 가거도 해안으로 밀려 오는 플라스틱 페트병 등 각종 부유물과 어업활동 중 버려지는 폐어구와 같은 해안쓰레기를 수거해 다시 찾아오는 섬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김기갑 가거경비대장은 “가거도 해안 환경정화 활동을 하게 되어 가거경비대 직원들 모두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고, 앞으로도 가거도를 위한 섬가꾸기 행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신안 매력 SNS 홍보” 관광 서포터즈 출범

#### 수도권·호남권 거주자 등 참여

신안군이 '제1기 SNS 관광 서포터즈'를 출범했다. 지난 18일 군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발대할 제1기 SNS 관광 서포터즈단은 지난 9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총 67명 중 수도권 26명, 호남권 20명과 함께 다양한 지역 거주자로 구성됐다. 위촉된 서포터즈들은 내년 12월까지 ▲군정소식 전달 ▲신안군 관광 명소 소개 ▲맛집 발굴 ▲문

화, 행사, 축제 현장 취재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안군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 사진, 기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전파하는 온라인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로 SNS의 영향력이 커진 요즘 SNS는 군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이라며 “발대식을 계기로 신안군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난 18일 군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서포터즈가 참석한 가운데 '제1기 SNS 관광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렸다. <신안군 제공>



무안 화산백련지 국화 만개 무안군의 대표관광지인 화산백련지의 국화동산이 만개했다. 무안군은 가을을 맞아 화산백련지에 국화를 비롯한 각양각색의 가을꽃으로 7000㎡ 규모의 초화동산을 조성했다. 화산백련지는 매년 여름철이면 10만평 연못에 초록색 연잎과 흰색의 연꽃이 장관을 이루면서 연꽃축제가 열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무안군 제공>

### 완도군, 기상 정보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제공

#### 건강기후지수 개발 나서

완도군이 기상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완도 건강기후지수' 개발에 나섰다. 완도 건강기후지수는 독일 기상청에서 개발한 열기후지수를 기반으로 풍속, 자외선, 강수량, 대기환경 등 완도의 기상 정보를 수집해 해양치유 프로그램(요가, 필라테스, 노르딕 워킹, 실내 활동 등) 이용 가능한 지수를 산출한다. 군은 기상 정보 수집을 위해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에 자동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했다.

4차 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학습 기반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공할 방침이다. 군은 수집된 완도군 기상 정보와 기상청 정보를 기반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건강 정보(체온, 혈압, 맥박수 등)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후지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완도 건강기후지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되며 10월 말 모든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해양기후지수센터를 방문하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위치를 받아 스마트폰 앱과 연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해남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해남군이 아동학대사건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 대응하고 아동보호와 조사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한다.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피해아

동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례 종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학대 의심 신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열려 있는 긴급전화(061-537-1391)를 구축해 상시 운영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